중풍병 삶의 마비 풀기

(마태복음 8:1~17)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중풍병 삶의 마비 풀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중풍병 삶의 마비 풀기'
본문의 17절 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우리가 살펴본 5~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17절까지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사람과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중심에 놓고 앞뒤 사건들과의 연결성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은 주로 뇌졸중에 의해 신체에 마비가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셨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상태와 하인이 낫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처럼 원활하지 못한 삶의 마비를 풀기 위한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4절에 나타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벌로 여겼기에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확진을 받은 나병환자는 물론이고 나병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파면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한 기간을 지나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나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환자가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지중에 접촉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나병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긴 채 들어왔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 본문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병환자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본 예수님과 나병환자의 만남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앞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간단히 말해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도 이 규정들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연합의 포인트를 제공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지켜지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합이 중요해집니다. 마태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시점에서 이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문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뒤에 곧바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그 사이에 나병환자의 사건을 더함으로써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와 예수님의 만남과도 같은 관계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환자는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 마음에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등으로부터 마음은 격리되어야만 합

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환자는 누구와도 관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혹시나 격리되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들과 연락이라도 취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단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23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마음에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곧 나병환자처럼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짐을 말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예수님보다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첫 번째 관계가 되실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기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로써 자녀를 책임지고자 하는 것은 얼핏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부모로써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병환자에게도 자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자녀와의 관계조차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자녀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때에만 예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전히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안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은 채로 입으로만 주님을 불러봤자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산상수훈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산상수훈의 말씀 뒤에 오늘 사건이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환자처럼 예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직장과 친구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어지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13절에서는 백부장의 신앙고백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을 헬라어 파이스(παις)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종의 의미를 둘로스(δουλος)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돈 주면 살 수 있는 물건과도 같았기에 종은 백부장이 맺는 인간관계의 대상 중에서 가장 하찮은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크게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7~8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 이상으로 감당 못할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써 조직의 명령체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체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 땅에 온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결정권자이시며 명령권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있어서 최상위의 명령권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주권을 가진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있었기에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물건 취급을 받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고자 예수라는 청년에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이 눈앞에 보이는 행색이 초라한 예수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전권이 위임되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놀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

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생사화복의 명령권과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었으나 진정으로 믿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행색이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에게 하나님의 전권이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 대단합니다. 그러한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감당 못할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로마 황제가 집에 온다면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다만 말씀만 받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은 그 명령에 따라 낫게 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도 놀라워하실 만한 사건이었지만 같은 동료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하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를 앞서 등장한 나병환자와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론적 교리적으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부장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하찮은 종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믿었고 이러한 믿음의 저변에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권이 하인과 연결되고 그 즉시 중풍은 고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와 정부에 대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마음가짐을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맺은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이 되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져야만 했던 관계들에 대해 명령권자가 되어주십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하인이 중풍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관계하는 대상들과 하나님이 실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심을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명령권자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은 것을 믿었기에 간구하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해 백부장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도 그것은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 죽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때문에 걱정인 부모가 있습니다. 이때에 부모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병환자처럼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 죽음으로써 예수님과의 만남이 유일하고도 첫 번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 또한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이 자녀에 대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명령권자이심을 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곧 내가 관계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책임과 부담을 끊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 됩니다.

백부장의 일화와 나병환자의 일화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의미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두 사건은 따로 언급되어도 풍성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이어지며 산상수훈과의 맥락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마음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병환자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이것

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권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에 교대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와서 보초를 서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믿지 못할 때에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자꾸 신경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동료에 대해서 전권을 쥐시고 명령권을 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 동료에 대해 보초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대하셔서 보조를 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마음 놓고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전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구원하시고 귀신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수고하고 짐 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열병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류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열병은 이 저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열병에 걸린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권자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병환자의 사건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끊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 교리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에야 믿음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세상에 대한 관계는 끊어질 수 있고 그 믿음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대신에 세상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명령권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제로 관계하는 대상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앎은 믿음으로써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은 계속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회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해결해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인생에 대해 사장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책임자로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명령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나병환자처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끊어져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고백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관계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모로써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명령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먼저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 자녀에 대해 책임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전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하인으로 부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열병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귀신들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들려서 살아갑니다. 나와 연관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전권의 손길이 뻗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알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린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곳에 나타나는 중풍병과도 같은 마비증세를 고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중풍병과도 같은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권자이시며 명령권자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은 예수님께 위임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권이 우리 삶에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 받았던 것과 같은 평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 즉 원수는 평강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로 인해 깨진 평강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평강을 지향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던 것처럼 삶의 모든 마비를 풀어내는 방향으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전권과 명령권을 가지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내 몸이 첫 번째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은 바로 몸입니다. 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명령권자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경 쓰는 대상들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에게 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명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확인하고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감으로써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가 관계 맺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위임된 하나님의 전권이 마비된 모든 삶에 평강의 명령으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